

자영업자의 고용구조 변화와 특징

김복순*

I. 머리말

2005년 이후 자영업 부문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12년에는 자영업자의 고용이 전년동기대비 135천 명 증가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2%대 저성장 속에서도 고용호조세를 지속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2012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자영업자는 ‘135천 명’으로 2000년대 초 증가폭과 비슷한 규모이다.¹⁾ 2000년대 초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지금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4~8%대를 유지해 지금의 경제상황보다는 나은 시기였다.

‘자영업 푸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자영업자에게 부는 바람은 매섭기만 하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생계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기존 사업체인 신규 창업한 사업체인 치열한 생존경쟁을 하게 되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자영업자는 끝내 도산하게 될 것이다. 결국 자영업자의 도산은 빈곤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는 2011년 하반기부터 증가하여 1년 넘게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자영업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지, 지난 1년간 신규자영업자들의 특징과 이들 안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eesaram@kli.re.kr).

1) 본고에서 2012년의 수치는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이다.

II. 자영업자의 고용구조

1. 자영업자의 고용주이와 특징

최근 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1~11월 평균)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2011년 동 기간에 비해 135천 명 증가하였으며, 자영업자 비중도 전체 취업자의 23.2%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가폭은 2000년 초반에 육박하는 증가폭이다. 2000년대 초반은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이 27~28% 수준이었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4~8%대를 기록했던 시기이다. 그러나 2012년의 우리 경제사정은 3사

〈표 1〉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고용규모 및 고용증감, 자영업자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고용규모	취업자	22,870	23,165	23,449	23,608	23,531	23,842	24,255	24,706
	임금근로자	15,177	15,535	15,958	16,208	16,444	16,954	17,388	17,707
	상용직	7,912	8,192	8,608	9,001	9,368	10,063	10,646	11,080
	임시직	5,047	5,134	5,172	5,079	5,104	5,074	4,990	4,999
	일용직	2,218	2,209	2,178	2,128	1,973	1,817	1,752	1,628
	비임금근로자	7,693	7,631	7,491	7,400	7,086	6,888	6,867	6,999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663	1,634	1,564	1,528	1,515	1,500	1,502	1,55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518	4,516	4,502	4,459	4,214	4,111	4,099	4,182
	무급가족종사자	1,512	1,481	1,425	1,412	1,358	1,277	1,267	1,264
고용증감	취업자	308	295	283	159	-77	311	413	451
	임금근로자	303	358	423	250	237	509	434	319
	상용직	301	280	417	393	367	695	583	434
	임시직	-35	87	37	-93	25	-30	-84	9
	일용직	37	-9	-31	-50	-155	-156	-65	-123
	비임금근로자	5	-63	-140	-91	-313	-198	-21	13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7	-29	-70	-35	-14	-15	2	5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0	-2	-14	-43	-245	-103	-13	83
	무급가족종사자	-58	-31	-56	-13	-54	-81	-10	-3
자영업자 비중	27.0	26.5	25.9	25.4	24.3	23.5	23.1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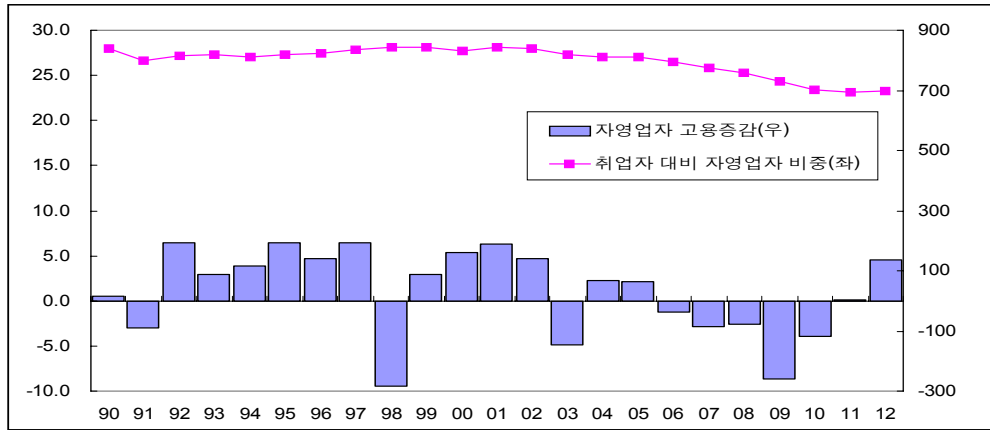
주: 각 연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기 현재 전년동기대비 1.5%를 기록하는 등 2%대의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2012년(1~11월 평균) 고용이 전년동기대비 451천 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영업자 고용증가폭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에 위기가 불어닥칠 때마다 경제위기의 최일선에서 고용한파를 겪었던 계층은 자영업자였다. 1997년 말 시작된 IMF 외환위기 때 고용부진은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조정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몰락이, 2003년 카드대란과 국제금융위기 때 고용부진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특히 5인 미만 나홀로 사업체의 휴·폐업이 주요인이었다.

[그림 1] 자영업자의 고용증감 및 고용비중 추이(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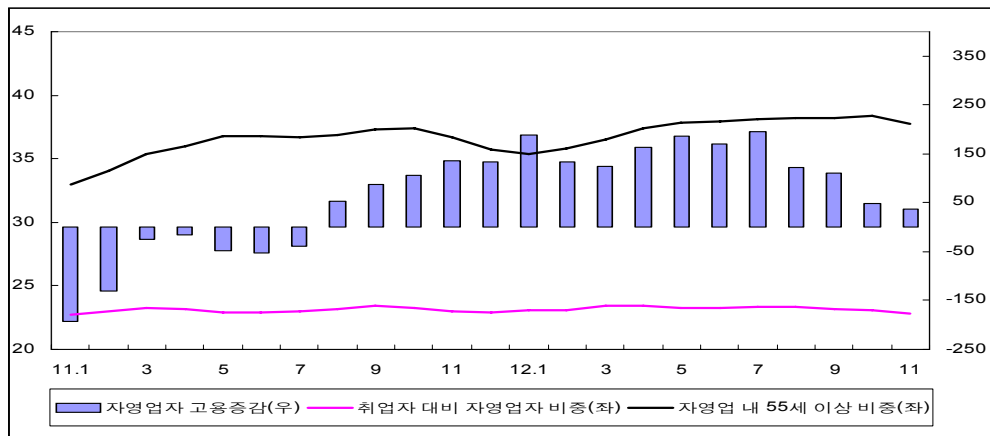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대비)



주: 2012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이며 전년동기대비 고용증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2] 최근 자영업자의 고용증감 및 고용비중 추이(2011.1~2012.11)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2년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 또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451천 명 증가하였다. 사실 2012년 고용시장을 전망할 때만 해도 각 기관들은 유럽발 경기침체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는 2011년을 밑도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2011년 고용호조세의 기저효과가 작용하여 2012년 고용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고용증가폭은 확대되었고, 이는

〈표 2〉 자영업자의 연령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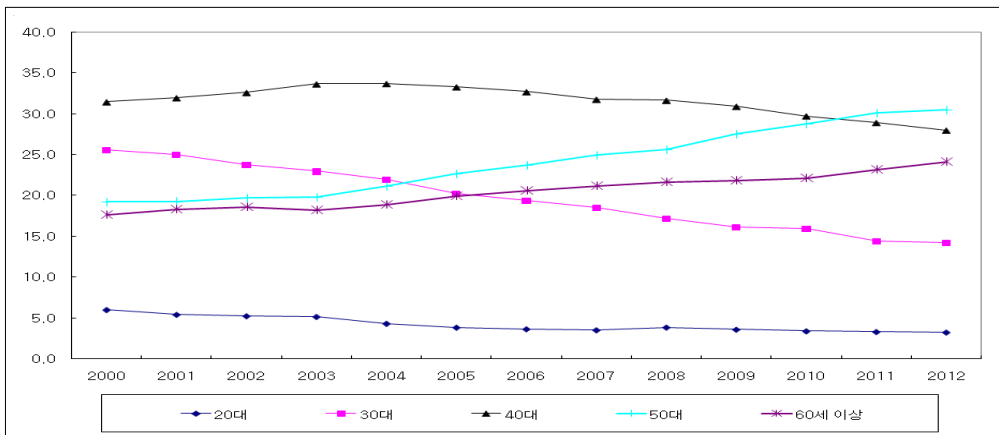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영업자 전체	161	186	140	-148	67	62	-38	-85	-79	-259	-118	1	135
20대	-19	-25	-3	-13	-48	-27	-14	-11	17	-25	-15	-5	3
20~24	-9	-5	7	4	-11	-7	-5	-10	5	1	2	-13	-1
25~29	-10	-20	-10	-17	-37	-19	-8	-1	13	-26	-17	8	7
30대	-2	11	-40	-83	-47	-93	-60	-69	-94	-106	-27	-85	-16
40대	110	88	85	16	25	-4	-49	-84	-33	-124	-102	-46	19
50대	16	38	55	-22	90	108	55	59	19	42	36	76	65
50~54	20	32	41	-23	48	73	44	34	21	23	6	32	19
55~59	-4	7	14	1	42	35	11	25	-2	19	30	43	46
60세 이상	60	71	44	-47	53	76	34	17	12	-46	-12	62	79
자영업 내 50대	19.2	19.3	19.7	19.8	21.1	22.6	23.7	25.0	25.6	27.5	28.8	30.1	30.4
연령별 비중 60세 이상	17.6	18.3	18.6	18.2	18.9	19.9	20.6	21.2	21.7	21.8	22.1	23.2	24.1

주 : 2012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3〕 자영업자의 연령별 비중

(단위 : %)



주 : 2012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임금근로자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고용증가세가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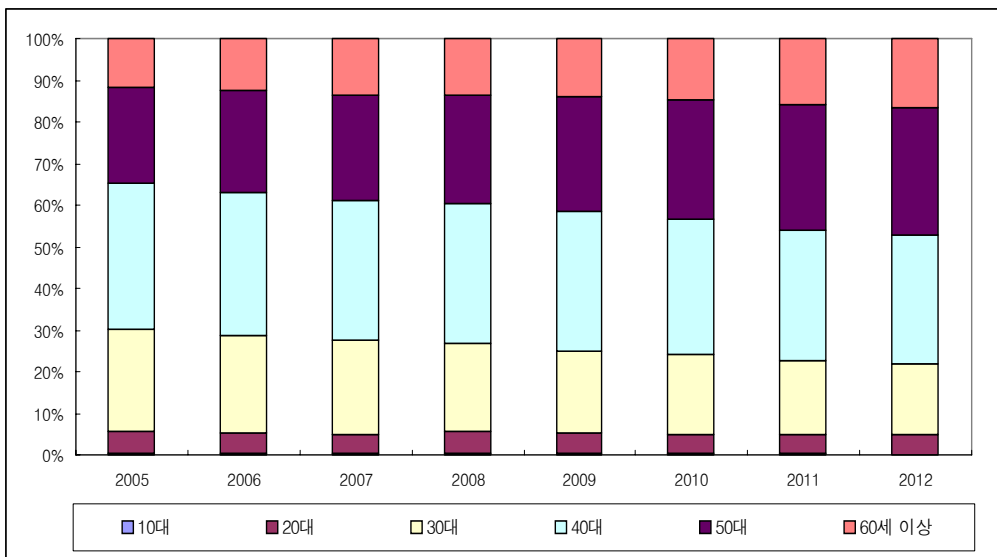
2012년(1~11월 평균) 자영업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계층은 50세 이상 중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의 자영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44천 명 증가했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자영업자의 증가는 2011년에 이어 더욱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감소세를 지속해 왔던 40대 연령층에서의 자영업자가 2012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된 것도 특징이다.

2012년 자영업자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50세 이상 중고령층이 54.5%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에만 하더라도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30~40대 연령층(2000년 57.0%)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들 연령층에서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5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2009년에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비중과 30~40대 연령층의 비중이 역전되었다. 2010년에 이르러서는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을 50세 이상 중고령층이 차지하였고, 자영업자의 두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는 점점 확대되어 2012년에는 12.4%p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112천 명, 40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 내수에 기반을 둔 전통적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증가하였다.

[그림 4] 서비스업 부문 자영업자의 연령별 비중

(단위 : %)



주 : 2012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3〉 서비스업 부문 자영업자의 전통적 서비스업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비스업 자영업자	4,100 (40)	4,093 (-7)	4,106 (13)	4,081 (-25)	3,909 (-172)	3,797 (-112)	3,805 (8)	3,911 (112)
전통적 서비스업	2,661 (-40)	2,619 (-42)	2,587 (-32)	2,540 (-47)	2,468 (-71)	2,377 (-91)	2,394 (16)	2,467 (80)
50세 이상 서비스업 자영업자	1,417 (140)	1,518 (101)	1,601 (83)	1,613 (12)	1,629 (16)	1,644 (15)	1,749 (105)	1,846 (104)
전통적 서비스업	1,009 (73)	1,084 (75)	1,112 (28)	1,120 (18)	1,157 (38)	1,174 (17)	1,242 (68)	1,295 (157)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12 (59)	863 (51)	892 (30)	894 (2)	925 (31)	952 (26)	1,009 (57)	1,036 (29)

주: 전통적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을 포함하며, 2012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임.
()안은 전년대비 고용증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전통적 서비스업에서의 자영업자는 전년동기대비 80천 명 증가하였으며, 50세 이상 중 고령층에서 무려 157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1~11월 평균) 자영업자는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홀로 사업체’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인 자영업자 또한 50세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08천 명 증가하였으며 20대 연령층에서도 소폭 증가하였다.

50세 이상 중고령층은 정년퇴직 등으로 임금근로자에서 빠져나와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은 퇴직금이나 가족들의 돈을 모아 전통적 서비스업 부문에서 나홀로 사업체를 창업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4〉 자영업자의 사업체 규모별·가구주 여부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영업자 전체	161	186	140	-148	67	62	-38	-85	-79	-259	-118	1	135	
규모	5인 미만	-163	156	95	-211	58	89	3	-47	-64	-258	-95	18	141
	5~9인	231	16	32	26	19	-21	-25	-7	-23	10	0	-11	-0
	10~29인	68	17	12	25	0	-2	-12	-23	12	-16	-17	-3	-3
	30~99인	24	-2	-2	11	-9	-2	-4	-6	-2	4	-7	-3	-4
	100~299인	1	1	3	-0	-2	-0	0	-2	-2	-0	-0	0	1
	300인 이상	1	-0	-0	0	1	-1	-0	-0	-0	-	-	-	-
가구주	가구주	144	127	116	7	-4	65	-11	-68	-68	-259	-123	-8	108
	비가구주	18	60	24	-155	72	-3	-27	-17	-11	-0	5	10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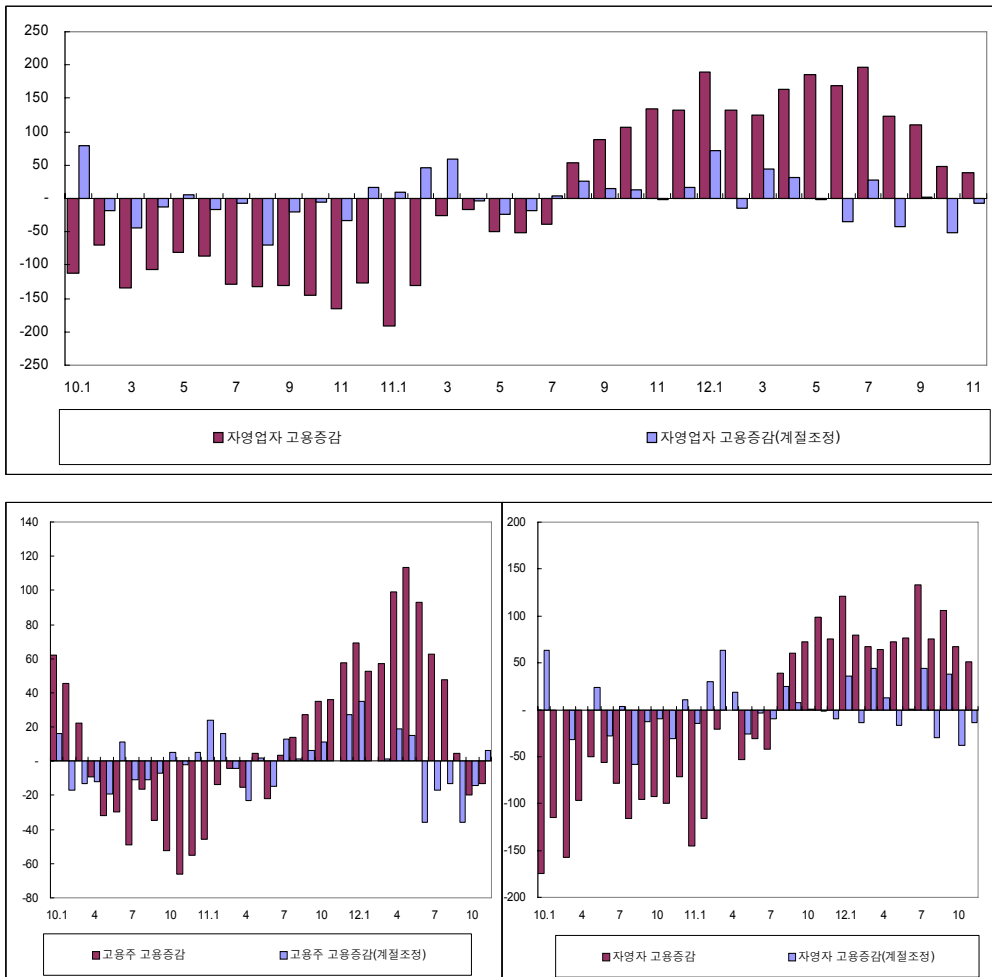
주: 2012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2년(1~11월 평균)의 활발했던 자영업 고용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어 2012년 11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38천 명 증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2년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여 11월 현재 13천 명 감소하였다. [그림 5]는 자영업자 고용증감의 계절조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의 계절조정치는 5개월 전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등락을 보이고 있다. 2011년부터 활발했던 자영업자는 2012년 하반기 들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 흐름(계절조정치)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3년 자영업 부분의 고용 흐름이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자영업자의 고용증감(원계열, 계절조정계열)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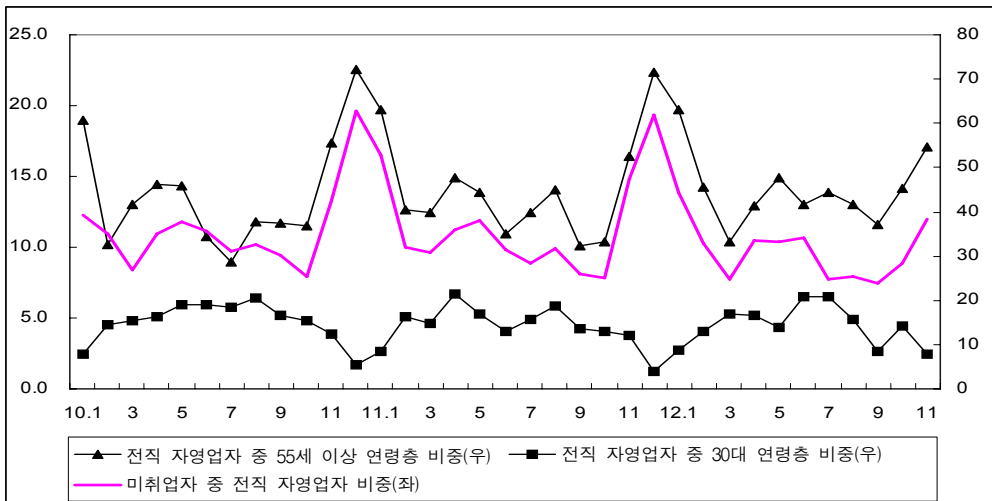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이와 더불어 미취업자 중 이전 직장의 종사상지위가 자영업자였던 비중은 2012년 하반기 들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5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 또한 확대되어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2년 10월 이후 자영업자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자영업자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1개월 미취업자 중 전직 자영업자의 비중 및 30대·55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Ⅲ. 신규자영업자의 특징: 부가조사를 중심으로

1. 자영업자의 사업체 유지기간

통계청에서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사업체 유지기간은 2012년 8월 현재 13년으로 전년동월대비 3개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앞에서 2012년 자영업자의 증가는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내수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서비스업의 사업체 유지기간은 9.4년이며, 특히 음식숙박업의 사업체 유지기간은 6.3년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부문 자영업자의 사업체 유지기간은 제조업, 건설업보다 짧으며, 교육서비스업(5.1년), 예술, 스포츠 관련 여가산업(5.9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한 지 1년이 채 안된 자영업자는 601천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0.4%를 차지하여 전년동월대비 1.1%p 감소하였다. 이는 창업보다는 기존 사업체를 유지하는 경향이 컸던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5인 미만 영세사업체였고, 전통적 서비스업(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에서 감소폭은 컸으나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창업이 감소하였고, 특히 40대 연령층의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자영업자의 사업체 유지기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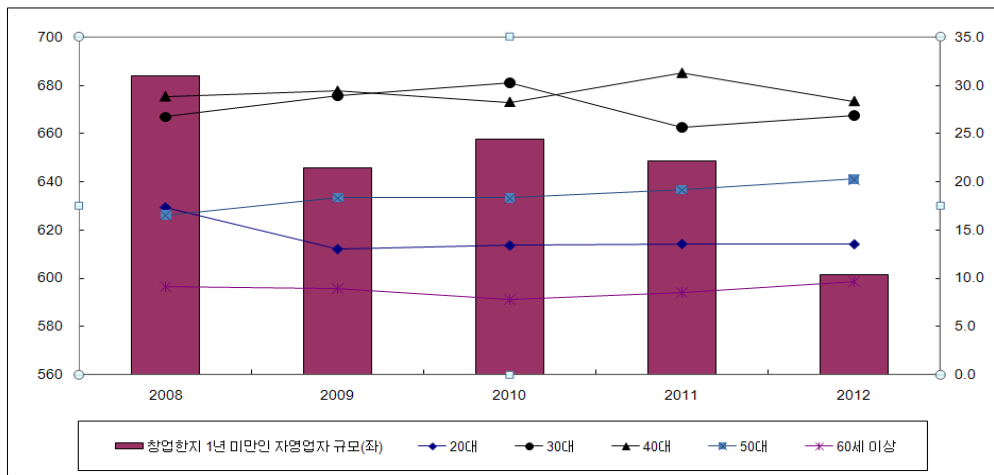
(단위: 년, %)

		2008. 8	2009. 8	2010. 8	2011. 8	2012. 8
유지기간 (평균)	전 체	12.1	12.3	12.5	12.7	13.0
	제조업	10.4	11.4	12.0	11.4	11.7
	서비스업	7.9	8.0	8.3	8.5	8.8
	전통적 서비스업	8.3	8.6	8.9	9.2	9.4
	건설업	9.3	9.7	10.2	11.1	12.1
유지기간	1년 미만	11.3	11.2	11.7	11.4	10.4
	1~2년 미만	8.8	8.6	7.9	8.9	9.0
	2~3년 미만	7.1	7.4	6.8	6.6	6.7
	3~10년 미만	32.9	31.7	29.4	28.5	27.9
	10년 이상	39.9	41.1	44.1	44.6	46.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7〉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의 규모 및 연령별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원자료.

〈표 6〉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 시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근로시간	51.8	50.4	49.8	49.8	49.1
제조업	51.4	50.3	51.2	50.8	50.3
서비스업	53.7	52.3	51.7	51.8	51.0
전통적 서비스업	57.3	56.2	55.5	55.3	54.9
건설업	49.6	48.9	48.2	48.0	47.2
임금근로자	45.1	43.9	43.4	42.7	42.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원자료.

2012년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전통적 서비스업의 근로시간은 다른 산업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영업자의 창업자금 규모 및 자금조달 방법

고용원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창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적금, 퇴직금, 명퇴금이 포함된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목돈’으로 조달하는 비중이 63.3%로 가장 많

〈표 7〉 자영업자의 창업자금 조달방법 및 창업자금 규모

(단위 : %)

		자영업자				창업 1년 미만 자영업자			
		2009	2010	2011	2012	2009	2010	2011	2012
창업 자금 조달 방법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목돈 (적금, 퇴직금, 명퇴금 등)	57.3	59.0	61.3	63.3	52.4	57.2	56.4	60.7
	친지 또는 동업자의 자금	3.5	3.2	3.0	2.5	4.7	3.3	4.5	2.2
	친지 또는 동업자 이외 타인에게 빌려서 마련	4.7	4.5	3.6	3.1	3.4	4.4	4.1	4.1
	은행,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11.1	10.6	11.4	10.8	11.6	9.5	13.4	9.4
	사채, 대부회사 등	0.7	0.6	0.6	0.4	0.3	0.7	0.6	0.1
	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 등	0.4	0.5	0.4	0.3	0.0	0.3	0.3	0.3
	별도의 자본이 필요 없었음 (사업승계, 무자본창업 등)	22.2	21.2	19.4	19.4	27.0	23.7	20.1	23.1
	기타	0.2	0.3	0.3	0.2	0.6	0.8	0.7	0.2
창업 자금 규모	5백만 원 미만	34.2	33.0	30.8	30.2	39.3	36.8	31.4	34.6
	5백만~2천만 원 미만	23.6	23.3	22.9	23.8	21.4	19.1	20.1	22.1
	2천만~5천만 원 미만	22.1	22.5	22.0	22.6	21.9	23.3	22.6	23.1
	5천만~1억 원 미만	12.8	13.6	16.3	15.4	11.4	13.8	16.9	12.8
	1억~3억 원 미만	6.2	6.3	6.6	6.3	5.5	6.0	7.7	6.0
	3억 원 이상	1.1	1.3	1.5	1.7	0.6	0.9	1.3	1.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원자료.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 10명 중 7명이 가족이 마련한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8월 창업한 지 1년이 안된 신규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본인이나 가족이 마련한 돈으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자영업자의 경우 기존 자영업자보다 ‘별도의 자본이 필요 없는 사업승계나 무자본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은행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창업자금을 조달한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현재 창업한 지 1년이 안된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본인이나 가족이 마련한 목돈으로 창업하였으며, 이들 중 30대 연령층의 증가가 눈에 띈다. 또한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의 창업자금 규모는 5백만 원 미만의 소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4.6%로 2011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영업자의 국민연금·산재보험 가입현황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거나 수급권자의 비중은 67.3%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다. 그러나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신규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수급권자 비중은 48.4%로 전년동월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권자 중 사업장 사업자의 비중은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2012년 신규자영업자는 270천 명으로 모두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업체로, 이들 대부분 교육서비스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2년 35.6%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신규자영업자의 가입률은 2011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자영업자의 국민연금·산재보험 가입현황

(단위 : %)

		자영업자					창업 1년 미만 자영업자				
		2008	2009	2010	2011	2012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민연금	수급권자	60.8	61.6	65.7	66.9	67.3	42.0	45.0	51.8	52.3	48.4
	사업장(직장)사업자	13.1	15.4	16.8	16.3	15.7	10.7	12.3	15.3	14.1	12.3
	지역가입자	37.0	34.3	36.3	38.5	39.1	27.3	28.4	32.6	35.0	31.3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 연금수급(권)자	10.7	11.9	12.6	12.2	12.6	4.0	4.3	3.9	3.2	4.8
	가입되지 않았음	39.2	38.4	34.3	33.1	32.7	58.0	55.0	48.2	47.7	51.6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음	39.6	40.0	41.2	37.3	35.6	21.3	24.7	30.7	19.5	23.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원자료.

4. 자영업자의 향후 계획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향후 사업체 운영에 대한 계획’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의 93.4%가 현 사업체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신규자영업자의 90.0%도 현 사업체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 사업체의 운영을 그만둘 계획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건강문제·돌봄 등 개인적인 문제나 현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현 사업체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신규자영업자는 모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자영업자의 경우도 개인적인 문제로 그만두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현 사업에서 더 나은 업종으로의 전환을 이유로 사업을 그만두는 신규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향후 사업체 운영계획 및 그만두는 이유

(단위 : %)

		자영업자					창업 1년 미만 자영업자				
		2008	2009	2010	2011	2012	2008	2009	2010	2011	2012
향후 계획	계속 유지할 계획임	89.5	89.4	89.6	92.3	93.4	82.5	82.3	84.1	88.3	90.0
	그만둘 계획임	4.3	4.9	4.8	3.0	2.8	7.8	8.1	7.8	4.9	4.8
	잘 모르겠음	6.1	5.7	5.5	4.7	3.8	9.7	9.6	8.1	6.7	5.2
그만두는 이유	현 사업에서 더 나은 업종으로 바꾸기 위해	15.3	13.5	13.7	9.9	13.2	13.6	10.4	14.6	11.2	20.9
	보다 적성에 맞는 다른 사업(일)을 하기 위해	5.2	6.2	6.6	3.2	3.4	1.7	10.0	11.7	11.8	4.2
	임금근로로 취업을 원하여	5.5	4.3	4.5	7.7	2.4	10.2	6.8	7.0	13.2	1.9
	프리미엄(권리금)수익을 목적으로	0.2	0.1	0.5	0.0	0.0	0.0	0.5	0.0	0.0	0.0
	향후 전망이 없어서(사양산업 등)	38.2	35.0	42.3	43.6	14.5	31.9	28.3	36.4	18.2	3.4
	현 사업이 부진하여	26.2	32.3	27.9	28.5	31.9	24.3	31.2	23.0	32.8	19.8
	개인적인 사유(건강문제, 가족돌봄 등)로 일하기가 곤란하여	6.3	6.6	2.2	3.3	25.5	11.1	9.0	2.8	7.0	33.7
	당분간 일을 하지 않고 사업구상 또는 자기계발을 하기 위하여	3.0	1.9	2.3	3.8	4.0	7.1	3.7	4.5	5.7	0.0
기타	0.0	0.0	0.0	0.0	5.3	0.0	0.0	0.0	0.0	16.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원자료.

IV. 맺음말

2012년의 고용시장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고용이 증가함으로써 2%대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고용호조세를 기록한 한 해이다. 그러나 고용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50대 이상 중고령층,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의 고용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자영업자 또한 50세 이상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내수에 기반을 둔 전통적 서비스업에서 증가폭이 컸으며, 창업한 지 1년이 안된 신규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창업보다는 기존 자영업자들이 현 사업체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자영업자가 본인이나 가족들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 만약 이들이 도산하였을 경우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안기게 된다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서는 2012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도록 하여 폐업시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한 계층이다. 자영업자가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여 준비된 창업을 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게 하고, 폐업 시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산업 재편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KLI**

<참고문헌>

금재호(2012),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노동리뷰』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이승렬(2012), 「자영업 부문에 지난 1년간 무슨 일이 있었나?」, 『노동리뷰』 9월호, 한국노동연구원.

〈부표 1〉 자영업자의 산업별 고용 및 고용증감

(단위: 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고용규모									
자영업자 전체	6,110	6,172	6,134	6,049	5,970	5,711	5,592	5,594	5,735
제조업	487	488	480	471	470	443	449	448	436
서비스업	4,060	4,100	4,093	4,106	4,081	3,909	3,797	3,805	3,911
도소매업	1,515	1,475	1,433	1,364	1,341	1,314	1,262	1,240	1,269
운수업	494	511	513	568	559	564	575	607	623
음식숙박업	692	676	674	655	640	590	541	547	574
출판, 영상 등	56	62	53	47	50	42	57	62	53
금융 및 보험업	48	48	52	51	43	28	27	30	3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3	166	174	178	177	168	160	155	151
전문, 과학 등	111	111	108	102	114	114	116	111	129
사업시설관리 등	45	41	43	44	48	45	45	41	40
교육서비스업	285	298	324	341	337	340	332	304	326
보건업 및 사회복지 등	41	48	54	57	62	67	70	70	68
예술, 스포츠 등	136	137	122	119	139	131	128	148	144
협회 및 단체, 수리 등	467	519	537	575	565	499	479	484	496
건설업	430	445	447	403	367	335	366	378	415
고용증감									
자영업자 전체	-	62	-38	-85	-79	-259	-118	1	135
제조업	-	2	-8	-9	-1	-27	6	-1	-14
서비스업	-	40	-7	13	-25	-172	-112	8	112
도소매업	-	-40	-42	-69	-23	-27	-53	-22	32
운수업	-	17	2	55	-9	5	11	32	17
음식숙박업	-	-17	-2	-19	-15	-49	-50	6	31
출판, 영상 등	-	6	-9	-6	3	-8	15	5	-8
금융 및 보험업	-	-0	5	-2	-8	-15	-1	3	0
부동산업 및 임대업	-	3	8	5	-1	-10	-8	-4	-4
전문, 과학 등	-	1	-3	-6	12	-0	2	-5	19
사업시설관리 등	-	-4	2	2	3	-3	1	-4	-2
교육서비스업	-	12	26	17	-4	3	-8	-28	21
보건업 및 사회복지 등	-	7	6	3	5	5	3	0	-2
예술, 스포츠 등	-	1	-15	-3	19	-7	-4	20	-4
협회 및 단체, 수리 등	-	52	18	37	-10	-66	-20	6	12
건설업	-	14	2	-44	-36	-32	31	12	40

주: 2012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